

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개선시를 대비한 예비금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9.11.(금) 세계일보와 이데일리는 남북협력기금 관련 ‘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 중 이산가족면회소 예산 및 ’26년도 기편성된 대북 인도지원 예산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.
- 세계일보는 「철거됐는데… 이산가족면회소 예산 30억원 편성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이미 철거된 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- 이데일리는 「작년 지원 ‘0’, 올해 집행계획 ‘0’ … 90% 늘린 깜깜이 대북 지원 예산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정부가 올해 대북 인도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90% 넘게 늘렸지만 집행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”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재정적 수단으로,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예비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사업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, 최근 10년간 0.8~1.2조원 규모로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해 오고 있으며, 매년 남북관계 개선시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.

< 최근 10년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편성 현황 >

(단위: 억원)

연도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	'25	'26	'27 정부(안)
편성규모	9,627	9,624	11,063	12,056	12,456	12,714	12,125	8,745	8,008	10,023	10,115

- 다만, 남북협력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고 있고,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측면에서
 - 1조원 규모의 기금 편성에도 불구하고, 실제 자금배정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정하여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.
- 이산가족 면회소 예산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특성상 집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에 대한 염원을 고려하여,
 - 남북대화 재개시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'26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행정외교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진호 (044-214-31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원재 (s9801530@korea.kr)
담당 부서	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	책임자	과 장	이혜련 (02-2100-59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신영 (sinmit9@korea.kr)